

亞100위권에 광주과기원 유일...세계 500위권은 한 곳도 없어



교육여건·연구·논문 평가 전남대 아시아 150위권 울산대 52위, 부산대 84위

열악한 광주·전남 대학 경쟁력

광주·전남 대학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대학 평가 기관이 다르고 항목별 가중치를 두는 경우 등 기준도 제각각이라 특정 평가 결과만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게 학계의 공통된 평가다.

하지만 평가 항목별 지표를 통해 다른 대학과 장·단점 등을 비교해 개선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할만하다는 지적도 많다.

세계 대학, 아시아 대학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 평가 결과에서 광주·전남 지역대학들의 이름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당장, 영국 고등교육평가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가 최근 내놓은 '2016 아시아대학순위'에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이 32위로 지역에서 유일하게 10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알리미에 제시된 광주·전남 국립, 사립대는 모두 20개다.

THE의 아시아대학순위는 매년 아시아 대학들을 대상으로 발표하며 교육여건·연구

논문 건수·논문 인용도 조선대 세계 838위 그쳐

구·논문 피인용도·국제평판·산학협력수입 등 5개 지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아 순위를 매긴다. 아시아지역에서는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100위까지는 개별 순위를 101~200위까지는 순위 구간만 발표한다.

포스텍이 국내 대학 1위(아시아 순위 8위), 서울대 국내 2위(9위), 한국과학기술원 국내 3위(KAIST·10위)에 이름을 올렸고 울산대가 52위, 부산대가 84위에 선정됐다.

전남대는 151~160위권에 올랐다. 전북대가 131~140위권에 포함된 점이 눈길을 끈다.

네덜란드 라이덴대학이 전 세계 대학을 대상으로 논문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라이덴 랭킹'(Leiden Ranking)도 비슷하다. 라이덴 랭킹의 경우 논문 수와 논문 인용도를 비율로 따져 순위를 매기는 만큼 대학별 연구력 품질을 가늠할 수 있다

는 평가를 받는다.

전남대는 국내 대학 중 종합 12위(세계 대학 중 701위)에 올랐다. 전남대는 사회과학·인문학 분야에서 GIST(세계 58위) 다음으로 국내 대학 중 2위(세계 386위)를 기록했다.

GIST는 국내 대학 중 종합 7위(세계 646위)에 랭크됐다. 울산대가 국내 5위(세계 594위)에 올라있는 점은 눈여겨볼만하다. 강원대(세계 716위), 경북대(736위), 전북대(769위) 등으로 파악됐다. 조선대는 세계 순위 838위로 호남권 사립대 중 유일하게 랭크된 데 의미를 부여했다. 결국 전남대·조선대와 GIST를 제외하면 지역대학들의 명단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질적 도약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영국 대학평가기관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주관하는 '세계대학평가'에서도 지역 사립대를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세계적 과학출판그룹인 '네이처'가 최근 발표한 '2016 네이처 인덱스'도 학계가 관심을 갖는 지표다. 네이처 인덱스는 68곳에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의 소속기관, 공동 저자의 기여도 등을 평가해 대학과 연구기관의 경쟁력 점수와 순위를 매긴다. 기초과학 관련, 권위를 인정받는다. 올해 세계 500위권에 포함된 국내 대학 중 광주·전남 국립대와 사립대는 전무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낙연 전남지사가 28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6기 2년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 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에너지·문화관광 등 미래산업 집중육성”

이낙연 전남지사 민선 6기 하반기 도정 방향 기자회견

이낙연 전남지사가 민선 6기 하반기에 에너지, 문화관광, 농수산식품, 생물의약(바이오테크) 등 4개 부문을 미래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이 지사는 또 인구 절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출산장려, 귀농·귀촌자 유치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기획조정실에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설치해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대책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정책담당관실 신설 출산 장려·귀농자 유치 인구 절벽 선제적 대응”

이 지사는 28일 오전 민선 6기 2년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과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전남의 활기, 매력, 온정을 높이는 일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서민배려시책, 남도문예르네상스를 안착시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빛가람혁신도시 에너지밸리를 중심으로 330만㎡ 규모의 에너지기업 중심 산업단지 신규 조성, 광주연구개발특구 확대,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관련 기업 500개 유치 등을 약속했다. 또 문화관광 분야는 여수, 순천 등 동부권에 이어 서부권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관광객 5000만명 시대를 조기달성하고 숲속의 전남, 가고 싶은 섬 가꾸기를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도문예르네상스의 선도사업인 전남국제수목화비엔날레를 2018년 개최하고, 전통정원 정비 및 복원, 바독박물관 건립, 전남종가문화 선양 등도 하반기 역점시책으로 내놓았다.

중국 친환경 농수산물 수요에 대비해 농수산식품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서남부권의 '해양수산물융합벨트'를 통해 부가가치 향상에 주력하기로 했다. 생물의약 분야는 화산 전남대병원 및 전남대의대, 나주 동신대 한의학과와 생물산업집중단지 등이 주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 지사는 소득과 교육 격차와 관련 “개전에서 용이할 수 있도록 소득과 교육의 격차 세습화와 확대를 끊기 위해 교육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국제공항과 광주공항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토론회를 열었으며, 향후 (공항 통합문제에 대한) 접근 전략을 제안해줄 것”이라며 “광주공항과의 통합에 대한 다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며,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송정~무안) 무안공항 경유 문제는 늦어도 이번 대선 전까지의 매듭짓겠다는 복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청년 창업 지원 대책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이 지사는 “청년 창업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관리를 위해 전남창업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겠다”며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에너지밸리 기업개발원 등을 통해 청년벤처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지역 대학들은 학생 수 감소,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압박과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인재 유출로 고충을 겪고 있다. 지역 거점국립대인 전남대와 호남 최초 사립대인 조선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기업 원하는 상품 만들어 내는 인력 공장 전략”

전문가들이 본 대학 현실

국내 대학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은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학술단체협의회 심포지엄은 국내 대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대학이 안팎에서 화제가 됐다.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이날 심포지엄에

서 “우리 대학을 정확히 그리려면 단순한 지식공장을 넘어서 ‘자본의 지식공장’, ‘인력공장’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어려운 창조적이고 비판적 지성을 연마하고 가르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찬호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은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공장이 되고 말았다”, “대학에서 이제 창의성과 독창성은 사라졌다”고 했다. 이도훈 한양대 교수는 “한국 대학은 거의 사망했다”, “대학은 취업준비기관으로, 교수들은 기능적 지식인으로, 학생들은 예비 직장인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511-중-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학 최희석·정행진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392(월곡2동 679-3)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진료내용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장애,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증·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